

朝鮮後期 禮裝用 쓰개류에 관한 考察 -簇頭里 · 花冠을 중심으로-

전혜숙[†] · 박수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A Study on Headdresses for Ceremony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Focusing on Chok-Du-Ri(簇頭里) · Hwa-Gwan(花冠)-

Hea-Sook Chun[†] · Soo-Ok Park

Dep.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ideas that Chok-Du-Ri(簇頭里) · Hwa-Gwan(花冠) are mentioned a substitute preventing abuses of luxury mood by Gache(加髻) as the sharpest social problem at that time. First, the origin of Chok-Du-Ri(簇頭里) was introduced from Ko-Ko-Gwan(古古冠) of Mongo(蒙古) in Korea dynasty, then was linked to Chosun. That is, Ko-Ko(古古) started from headgear reflecting spiritual view of the northern people, its size was getting smaller passing through Ming(明) dynasty, its essential decoration changed and it carried out Jeon-Ja(紺子) remaining decoration nature by real accessories, then it might be descended to Chosun. Second, Hwa-Gwan(花冠) is very different from Nanaec(暖額) of Chosun Dynasty Records, rather Jeonja, the original form of Chok-Du-Ri, is more similar to it. Third, its decoration like color, jewel, pattern etc influenced wishes of this life like sex, prosperity, glory, longevity, blessing, wealth and fame. Fourth, Chok-Du-Ri(簇頭里) was restored a substitute for Gache(加髻), it was accessory for preventing luxury life, besides it was modeled from headgear in China, Chosun people had it. It is worthwhile as it was based on Chosun Sinocentrism(朝鮮中華主義)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and made it the fruit of that age. Moreover, in those days Qing(清) society accepted the advanced culture and institutional profit of Qing(清) actually, social mood is that home and overseas policy was corrected in many parts, Chok-Du-Ri · Hwa-Gwan were mentioned a substitute of Gache, symbol of luxury. It shows one part of Practical Thought that abolishes vanity and affectation and makes useful profits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Key Words : Chok-Du-Ri, Hwa-Gwan, Chosun Sinocentrism, Jeonja, Silhak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A Univ.
840 Hadan-dong, Saha-gu, Pusan, 604-714, Korea.
Tel : 051-200-7306, Fax : 051-200-7306, H/P : 019-530-6741
E-mail : sook8@hanmail.net

1. 序 論

예장용 쓰개류는 翟冠, 花冠, 簇頭里등을 들 수 있는데 身分 表式 및 특별한 행사시에 禮儀를 갖추기 위해 쓰여졌으며, 사용 빈도와 범위가 적었기에 실용적 용도의 쓰개류와는 달리 그 制度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의식과 관련성을 가지고 오래동안 계승되어 오는 전통적 특성이 강한 쓰개류라 볼 수 있다.

예장용 쓰개류에 대한 先行研究¹⁾를 살펴보면 주로 족두리에 한정되어 있고, 예장용 쓰개류 중에서도 적관, 화관을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양한 쓰개류의 부분적 소개로서 일부 언급해 주고 있을 뿐이다. 여성용 쓰개류에 대한 언급을 조선전기 문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조선후기 英祖·正朝實錄에서 女性加髻의 폐단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책의 일환으로 족두리, 화관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고, 조선후기 문헌에 일부 언급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족두리와 화관에 따른 논의를 朝鮮王朝實錄 또는 다른 資料들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 朝政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加髻의 폐단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나, 논의 과정에 있어 가체의 代替用品으로 거론되는 데에는 두 가지 방향성을 분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전에 없던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내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이미 앞 시대에 있었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활용하는 입장을 볼 수 있는데, 족두리·화관의 경우 이미 앞 시대에 있었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활용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체의 대체제로 거론되는 쓰개류로서 족두리·화관을 宮樣 혹은 중국의 冠帽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奢侈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족두리·화관의 대체방안이 다른 시대에도 있었을 법한데,

1) 李甲姬, 簇頭里小考, 이화여대대학원 석사논문, 1976
李允姬, 現代 婚禮帽 開發에 관한 研究, 弘益大産業美術大學院 석사논문, 1986
金知娟, 족두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논문, 1999
이연화, 족두리(簇頭里)의 형태 및 제작과정에 관한 연구, 세종대대학원 석사논문, 1999

부득이 영·정조대에 와서 집중 거론된 것은 당시 이러한 양식을 다시금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같이 족두리와 화관을 부활시키려는 당시 정치권의 분위기와 宮樣을 일반화시키려는 시도는 그 당시의 변화된 사회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당시 정치권이 추구해 나가는 조선후기 사회의 성격을 족두리와 화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족두리와 화관의 원형이 宮樣 혹은 중국의 관모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에서 중국의 관모속에서 變貌過程을 고찰 분석해 보며, 족두리와 화관의 양식적 특징과 함께 조선후기 사회적 특성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시대적 배경은 조선후기 가체금지령과 함께 족두리와 화관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권장되었던 17~18세기 영·정조대를 중심으로, 朝鮮王朝實錄, 문집에서 예장용 쓰개류에 관한 기록을 발췌, 분석 고찰하고, 中國문헌을 통해 족두리와 화관의 源流 및 變貌過程을 고찰해 보고, 족두리와 화관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반영된 의미를 분석해 본다.

遺物분석은 개인 소장품과 온양민속박물관 그리고 대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족두리와 화관의 圖錄을 참조하여 그 양식적 특징을 분석, 고찰한다.

II. 朝鮮後期 社會相

조선은 儒教를 治國의 지도이념으로 내세움으로써 유교는 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정치 윤리, 정책 내용, 행동 규범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쳤으며, 일반인의 일상 생활에까지 확대되었고,²⁾ 조선 중기 宣祖代에는 士林派 학자들이 政界와 學界에 진출, 性理學과 名分論은 조선중기 이후 後期 社會를 이끌어 가는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16세기말-17세기초 壬辰倭亂·丙子胡亂 양란을 겪으며 17세기 중·후반의 조선사회는 전쟁 후유증을 극복,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와해된 조선 사회를 재건하기에 전력투구하는³⁾ 가운데, 국제정

2) 이영주, 조선시대 加髻 변화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2000 p. 7.

세도 큰 변화가 있었으니, 중국에서는 명과 청이 교체됨으로써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유교적 개념 아래 유지되어 오던 아시아권의 세계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

조선은 당시 국내외적 상황을 극복하고, 유교문화의 마지막 주자였던 명을 계승하는 유교정통문화국가로의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 유교를 강화하고 문물의 제도적 재정비를 하게되며 禮制가 발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朱子主義의 義理之學의 경향은 反清的 北伐論과 對明義理論으로 모아져 조선이 곧 중화라는 문화자존의식을 갖게 되었다.

北伐論은 胡亂 당시 國論이었던 斥和論을 계승한 논리인데 清을 쳐서 복수 설치하겠다는 對清復讐論이 명에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對明義理論과 맞물려 제기되는 과정 속에서, 17세기 조선 사회는 周室은 明으로 이후 朝鮮으로라는 사고의 틀로 전환시키며 이전의 小中華主義를 朝鮮中華主義로 탄생시켰던 것이다.⁴⁾

그러나 18세기 末 正祖代는 조선사회가 중세 농경사회에서 근대 상공업 사회로 변화하는 조짐이 나타난 전환기로 조선 성리학이 퇴조하고 北學思想이 형성 추진되고 있었는데,⁵⁾ 이는 京鄕으로의 사회적 분기현상 속에서 큰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淸朝門物의 접촉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서울의 京華士族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어서,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명분론의 수정을 도모하는 등 조선 사회 지도이념의 재정립을 꾀하였다.

이들은 국제문화조류에서 유리된 채 낙후되어가던 조선 문화의 실상을 파악, 기존의 문화자존의식과 北伐大義論을 반성하면서,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는 北學을 제기하고, 경우에 따라 서학과 천주교까지 수용하여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융합을 통하여 조선사회의 문화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여 北伐論은 점점 정당성을 잃어가 그 의미가 상실되고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尊周論에 입각한 조선중화주의는 18세기 조

선 고유문화 창달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변화논리인 북학사상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19세기말 서양세력에 응하면서도 지식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유효하였으니, 조선전기가 외래사상인 성리학과 중국 문화를 수용, 이해해 가는 과정이었다면, 조선후기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선 고유문화를 창달하고 조선이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朝鮮中華主義를 시대정신으로 성립시켰다고 볼 수 있다.⁶⁾

사회적으로 볼 때는 士와 民의 신분적 混用 현상으로서 身分意識과 名分論이 弛緩되어 가니 농업생산력의 증가와 국가제조사업의 성공 및 국제무역의 흑자 등은 상품화폐의 발달과 도시의 팽창을 초래하고, 신분제의 등요와 새로운 사회세력의 성장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사치풍조를 만연시켜, 正祖代는 一般民도 경제력만 있으면 士族이 입는 도포와 갓을 쓰고 양반행세를 하는 사회상이 전개되었다.⁷⁾

이러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치가 심하여져 사회적으로 동요되고 문제시된 바, 이 시대에 있어서 여성에게 내려진 加髻禁止令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며, 가체의 대신으로 다시 등장한 족두리와 화관에는 위정자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사치풍조 중의 하나였던 가체에 대한 代案으로서, 족두리와 화관의 사용을 법령화하여 사대부 여인들에게 쓰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사치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이기는 그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時代的 產物이라고 생각된다.

III. 簇頭里와 花冠의 變貌過程

1. 簇頭里

족두리가 널리 보급된 것은 조선후기 영·정조시대 가체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금지하기 위한 代替制로써 제시된 이후로, 조선조 문헌과 중국의 문헌을 함께 비교해 가며 족두리의 변모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

3)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p. 152.

4) 최완수 외, 진경시대1, 돌베개, 1998 p. 92.

5) 정옥자, 앞의 책, p. 154.

6) 정옥자, 앞의 책, pp. 15-20.

7)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p. 123.

다.

가. 朝鮮朝 文獻에 나타난 簇頭里

<英祖實錄> 33年 11月條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오늘날 禁해야 할 것은 婦女들의 다리이다’ 하니, 知經筵 洪鳳漢이 말하기를 ‘백성들의 집에서 婚禮때 다리를 사기 위하여 심지어는 家産을 탕진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禁습이 한번 내리면 온 都城이 반드시 鼓舞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法制로 定한 뒤라야 비로소 禁할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特進官 鄭亨復이 아뢰기를, ‘物件의 實情은 반드시 便利함에 알맞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으로 代用하면 좋겠는가?’ 하니, 洪鳳漢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젊은이들은 족두리를 썼고 늙은이가 되어야 비로소 다리를 엮었다고 하는데, 儒臣들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議定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校理 尹得養이 아뢰기를 ‘어떤이는 족두리라고도 하고 어떤이는 花冠이라고도 하는데 만일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을 禁하지 않고 裝飾을 호화롭게 하면 그 폐단은 다리보다 더 클 것입니다.’”⁸⁾ 하고 있다.

이는 加髻로 인한 사회적인 弊害가 심해지자, 政治權에서 加髻를 代用할 首飾으로 족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족두리는 花冠과 同質한 것이며 이미 앞 시대에 있었던 제도로서 소개되고 있고, 영조대에 와서는 이미 사대부 班家에서 모두 착용하고 있음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모류는 中國 使行길에 다녀온 자들이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冠帽를 들여다 예장용 관모로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후기 영조대에 거론되던 족두리는 중국의 화관과 별 차이가 없는 예장용 관모였음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문집을 보면, 李肯翊의 <燃藜室記述>에는

“우리나라 부인이 검은 비단 혹은 자색비단의 온폭 두자 두치의 가운데를 접어 두겹으로 하고 그 속에 두터운 종이를 발라 머리에 쓰되 이마를 덮어 정수리

에 이고 어깨위로 내려 드리우니 이것을 遮額이라고 한다. 光海君 중년때부터는 검은비단으로 걸을 하고, 그 안에 솜을 넣어 가운데를 비도록 하여 머리 위에 붙여쓰기를 結頭쓰는 것 같이 하는데, 이를 足頭裏라고 한다. 일시에 나라의 풍속이 변하게 되매, 遮額의 제도는 아예 없어졌다”⁹⁾ 라고 있다.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婦女首飾辯證說에 잘 나타나 있는데 “高麗史를 살펴보면 元 나라에서 王妃에게 古古里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관의 이름으로서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 지금의 족두리라는 것이 고고리와 그 음이 비슷하니 혹시 고고리가 와전되어 족두리가 된 것은 아닐까?”¹⁰⁾라 하고, 또 同書에 “우리나라 부녀자들이 쓰는 冠에 족두리라는 것이 있는데 簇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簇冠이라고도 한다. 이는 명나라 萬曆 末부터 있었던 것인데 걸은 검은 비단으로 감싸고, 여섯 모가 나게 한 帽子로서, 위는 넓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좁아졌다. 이것을 머리 위에 쓴다”¹¹⁾하여 족두리와 유사한 형태가 明代에도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덕무의 <靑莊館全書>를 보면 “부인들의 머리를 땅은 큰 다리와 짧고 좁은 옷은 몽고 유평이니 거론할 것도 못되거니와 簇兜, 北髻는 이 또한 무슨 장식인가?”¹²⁾라 하고 있다. 족두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문헌이 많지는 않으나 이들 문헌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족두리가 중국의 元 또는 明, 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족두리가 중국에서 전래된 쓰개류라 볼 수 있다.

9) 李肯翊, <燃藜室記述>.

我國婦人 以玄錦或紫錦全幅二尺二寸 中屈之爲兩重 以厚紙貼其裏以戴之 從額覆頂合于後 以加肩背 謂之遮額 自光海中年以來 率用玄錦爲表 以紫爲裏而空其中 帖戴頭上 如着缺頭 謂之足頭裏 一時好尚 遂變國俗 遮額之制絕無矣

1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婦女首飾辯證說

高麗史 元賜王妃古古里 卽冠名傳於世 則今簇頭里 无乃古古里之音 近而訛者歟

1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婦女首飾辯證說

東國女子冠 名有簇頭里 一作簇兜 一作簇冠 自皇明萬曆末始有之 表以玄錦 作六稜帽子 上廣下殺 戴於 函上

12)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30, 11소절 제6 婦儀—服飾.

민족문화추진회편, 국역 청장관전서, VI, 1960 p. 124.

8) 英祖實錄, 英祖 33年, 11月, 己丑

仍教曰 今之可禁者 婦女髻髻也 知經筵洪鳳漢曰 人家婚禮 買髻者多至敗産 禁令一下滿城必鼓舞矣 然一定邦制 然後始可禁也 特進官鄭亨復曰 物情必稱便矣 上曰 當代用何物耶 鳳漢曰 古則少者戴簇頭 老者始戴髻 而使儒臣博考而議定宜矣 校理尹得養曰 或言簇頭 或言花冠 而若不禁奢 盛其首飾 則其弊反過於髻髻矣

나. 中國 文獻에 나타난 簇頭里

(1) 元代의 冠帽를 통해 본 簇頭里

조선조 문헌에서 살펴 본 바 족두리는 古古冠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니 古古에 대하여 그 형태와 구조 및 원류를 중국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中國衣冠服飾大辭全>에는 ‘뽕뽕’, ‘뽕뽕’, ‘籬籬’, ‘姑姑’, ‘固姑’, ‘故姑’, ‘罽姑’, ‘括罽’, 혹은 ‘古庫勒’ 등의 용어가 함께 혼용되어 쓰여졌다고 하며, 만드는 법과 형태는 顧姑는 宋 - 元代 몽고족 귀부인이 썼던 禮冠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철사, 자작나무 혹은 버드나무 가지로 써 뼈대를 만들고, 바깥에는 종이나 絨 또는 絹으로 배접을 하고, 朵朵翎을 꽂거나, 그밖에 金箔의 珠花로 꾸몄다고 전하고 있다.¹³⁾

宋 孟珙의 <蒙鞬備衆>에는 “무릇 모든 우두머리(추장)의 처에게는 顧姑冠이 있으며 철사를 엮어서 만들었으며 형태는 竹夫人과 같으며, 길이는 3尺 정도였고, 붉고 푸른 비단에 수를 놓거나, 혹은 구슬이나 금을 장식하였다.”¹⁴⁾고 하고, 陳元靚의 <事林廣記·後集>권10에는 “固姑는 오늘날 鞬과 回回族 부녀들이 쓰는 것으로 바깥에 종이를 풀로 붙인 것으로서 朱漆을 하고 금장식을 올려 붙인 것으로 남방의 한족부녀자들은 이를 착용하지 않는다. 冠의 정수리에는 가는 가지와 같은 것을 꽂기도 하였으며, 비취로 된 꽃(翠花), 용으로 된 공(絨球), 무늬가 있는 비단(彩帛), 구슬을 꿰거나 혹은 새의 깃털가지(翎枝)를 함께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움직일 때는 춤추듯 흔들리며 나부꼈다. 장식물을 사용할 때에는 등급이 있는 바, 冠을 쓰는 사람의 신분을 정하였다”¹⁵⁾고 하고 있

다.

宋의 彭大雅는 “고고의 제도는 자작나무로써 뼈대를 만들어, 붉은 비단이나 금색 비단으로 겹을 썼다. 정수리 위에는 4·5尺 길이의 버드나무가지 혹은 銀을 두드려서 만든 가지를 사용하고 푸른색의 펠트(氈)로 싸기도 한다. 윗사람에게는 제도적으로 朝翠花 혹은 五采의 비단으로 장식하여 나부끼듯 움직이도록 만들었고, 아래 사람은 꿩의 털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¹⁶⁾

丘處機는 <長春真人西方遊覽記>에서 고고관에 대하여 말하기를 “부인의 관은 자작나무 껍질로 관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2자 남짓하고 흔히 검은 베로 그것을 싸매었고, 부유한 이들은 붉은 비단으로 썼다. 관의 끝 부분이 거위나 오리 같았으므로 고고라고 이름지었다.”¹⁷⁾

이같이 고고가 서역에서 원대 이전부터 다양한 신분의 부녀자들이 착용되었던 것으로, 그 구체적 형태를 甘肅省 敦煌 莫高窟<圖1>과 西安 榆林窟의 元代 壁畫<圖2>, 南薰殿 소장의 <歷代帝后像><圖3>에서도 찾아 볼 수 있고, 元代 이전인 五代의 회화<圖4>에서도 볼 수 있는데, 조선후기의 족두리와는 그 형태가 다른 형태임을 볼 수 있다.

(2) 明代의 冠帽에서 찾아 본 簇頭里

明代의 회화인 중국역사박물관 소장의 <明憲宗元宵行樂圖卷> <圖5>에는 황제주변에 궁중여인들을 보며 周錫保는 말하기를 “홍색상의에...裳은 馬尾裙이고 高麗치마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며, 머리에 쓴 관모의 명칭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형태는 尖髻, 髻 위에 金玉鈿으로 장식을 더한 투명한紗로

13) 周汛·高春明,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6 p. 56.

宋元時蒙古族貴婦所戴的一種禮冠 一般以鐵絲樺木或柳枝爲骨 外裱皮紙絨絹 插朵朵翎 另飾金箔珠花

14) 위의 책, p. 56.

凡諸酋之妻 則有顧姑冠 用鐵絲結成 形如竹夫人 長三尺許 用紅青絹金綉 惑珠金飾之 .

15) 위의 책, p. 56.

固姑 今之鞬旦回回婦女戴之 以皮或糊紙爲之 朱漆剔金爲飾 若南方漢兒婦女則不戴之

冠頂另插細枝若干 并飾有翠花 絨球 彩帛 珠串或翎枝 行動時飄舞曳 所用飾物亦有等級

觀戴冠者身份而定

16)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1981 p. 389.

故姑之制 用畫(樺)木爲骨 包以紅絹 金帛頂之 上用四五尺長柳枝或鐵打成枝 包以青氈 其向上人(指高級貴族)則用我朝翠花或五彩帛飾之 令其飛動 以下人則用野鷄毛

17) 위의 책, p. 389.

婦人冠以樺皮 高二尺許 往往以皂褐籠之 富者以紅絹其末如鵝鴨 故名故姑



〈圖1〉
 甘肅省 敦煌 莫高窟의 古古冠
 출처 : 中國古代 服飾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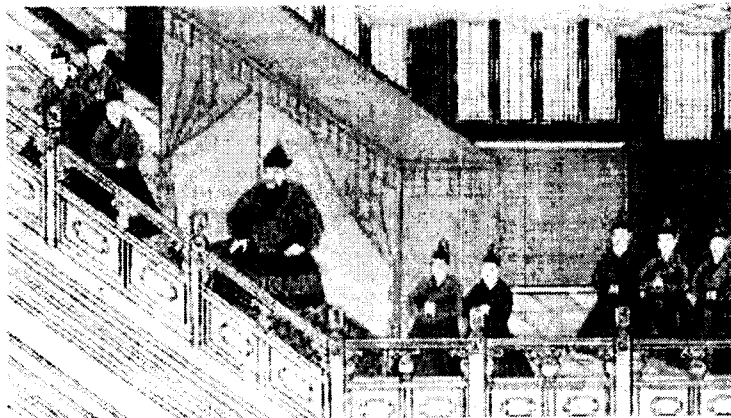
〈圖2〉
 西安 榆林窟의 元代 壁畫의 古古冠
 출처 : 中國歷代婦女妝飾



〈圖3〉
 南薰殿 소장의 歷代帝后像
 출처 : 中國歷代婦女妝飾



〈圖4〉
 南薰殿 소장의 그림
 출처 : 中國服飾 5000年(下)



〈圖5〉
 明憲宗元宵行樂圖卷
 (중국역사박물관소장)
 출처 : 중국황제유물선

만든 高尖帽이며 각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여 明角冠이라 하며, 이를 樂人, 妓女 등이 썼으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부녀자들이 궁중연회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하며, 관의 기원은 아마도 원나라의 姑姑의 높은 관의 영향을 받은 듯하니 즉 姑姑冠 型制에서 改制된 일종의 冠飾이라 보고 있다.”¹⁸⁾

이는 明의 제9대 현종 朱見深의 작품으로 명 건립 후 100여년이 지난 후에도 제도에 변모는 가져왔지만 몽고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나, 조선후기 족두리와 비교해 볼 때 상투 위에 쓰는 형식은 유사하나 그 형태는 상이함을 볼 수 있다.

(3) 清代의 冠帽에서 찾아 본 簇頭里

조선후기와 同時代인 清代의 만주족 부녀자들의 관모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예복을 입을 때 사용하는 수식의 일종인 鈿子<圖6>를 들 수 있다.



<圖6> 鑲珠翠青鈿子
출처:清代后妃首飾

18)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p. 424.

元爲紅衣...恐亦受高麗裙式的影響 卽所謂馬尾裙 所戴的尙不能明其名稱 像作尖髻 髻上加金玉鈿飾 外罩反檐透亮紗高尖帽 亦可能用明角爲之 但明角冠爲樂妓等所戴 与此婦人的身份不符 其或在宮中游宴時亦戴之 此冠的刑制 恐受元人的故姑高冠的影響 并在故姑冠的刑制基礎上而加以改制的 一種冠飾

淸의 夏仁虎의 <旧京瑣記> 권5에 “淸末 중요한 옷차림에는 진주, 비취로 장식한 것을 썼는데, 이를 일컬어 鈿子라고 하였다”고 하였고, 福格的 <聽雨叢談> 권5에 “八旗의 부인들은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鈿子의 제도가 있는데, 鳳冠 제도와 같고, 철사 혹은 등나무 넝쿨로써 뼈대를 만들고, 皂紗 혹은 망으로 된 모자이다. 鳳冠과 같이 七翟을 가하는데, 周代에는 주류로써 그 길이가 눈썹에 이르렀다. 뒤는 키를 거꾸로 얹어놓은 것과 같고, 위는 궁릉형으로 높고, 아래는 넓으며, 늘어진 것이 어깨에 이르렀고, 五翟을 가하여, 각각 한 줄의 구슬이 연결되어 늘어져 있고, 매 衡마다 구슬이 3줄 꿰어져 있는데, 璜과 璣를 섞어서 연결하고, 뒤로 늘어진 것이 어깨에 이르러 길이가 1尺 몇寸이었다. 좌우에는 薄鬢을 하고, 그 가운데에는 구슬과 비취의 꽃잎이 있고, 둘레에는 구슬로 纓絡을 입히는데, 이마에서 뒤로, 뒤의 旒에 잇달아 비스듬히 이어져 있고, 빈 공간에는 서로 구슬, 비취, 구름, 꽃봉오리 등, 복잡한 꽃 장식으로 열고 짙은 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일컬어 鳳鈿이라 하였다. 또 어떤 常服의 鈿子에는 구슬과 珠翠로 가득 혹은 반을 장식하였으며, 珠旒에도 불구하고, 옛날 부인들의 冠子 제도가 이것과 닮았음이라고 하였다.

崇禎의 <道咸以來朝野雜記>에는 “부녀자들이 袍褂를 예복으로 입을 시에, 머리 위에 썼던 것을 일러 鈿子라고 한다. 鈿子는 鳳鈿, 滿鈿, 半鈿의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 그 제도는 검은 絨과 緞으로 안의 심지를 만들고, 銀絲 혹은 銅絲로써 외부를 받치고 있는데, 點翠(비취세공품의 하나)를 잇거나, 혹은 구슬(진주)을 입혀서 장식하기도 한다. 鳳鈿에는 9개의 조각이 장식되어져 있고, 滿鈿에는 7塊, 半鈿에는 5塊로, 정면에는 1塊, 鈿의 뒤에는 큰 조각 하나(一大塊)가 있다. 이것과 같은 것이 있는데, 정면의 위에는 타원형의 장식이 셋 혹은 다섯 혹은 일곱으로 나눈 것이다. 鳳鈿은 신부를 제외하고는 당연하게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滿鈿과 함께 사용되었고, 과부와 나이가 많은 부녀자들은 半鈿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근대의 사람인 徐珂의 <清稗類鈔·婚姻>에도 “신부의 옷을 고치는데, 그 부귀한 장식으로서 鈿子가 있다.”고 하였다.¹⁹⁾

이같이 淸代의 鈿子는 그 형태와 만드는 구조, 장식과 용도 등이 오히려 元代의 古古冠이나, 明角冠보다도 더 조선조의 족두리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시대가 멀어질수록 제도가 변모되고 용도도 변하여 전혀 다른 양식으로 변모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있으나, 기본적 원형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花冠

가. 朝鮮朝 文獻에 나타난 花冠

<宣祖修正實錄>에 “중국의 여인들은 시집간 여인은 머리를 정수리에 묶고 髻를 엮는데, 그 제도는 북쪽 사람은 철사로 묶고 남쪽 사람은 대로 묶으며 남북이 다 비단으로 씌인다. 또 비단을 걷고 首帕를 하기도 하는데 鈿子라고 부릅니다. 겨울에는 흑 毛皮로도 하는데 暖額이라고 하며, 이마에서부터 상투를 둘러 머리 뒷쪽에 맏고 그 위에 비녀를 꽂습니다. 부인이 무슨 일로 밖에 나갈 때는 역자를 무늬비단으로 꾸미거나 흑은 金皮를 엮습니다. 신부를 親迎할 때에도 그것만 머리에 씌울 뿐이며 흑은 七寶로 단장할 때도 있는데, 시속에서는 이것을 花冠이라 한다고 합니다.”²⁰⁾하니, 화관이 중국 여인들의 상투 즉 髻를 장식하기 위한 용도인 首帕, 鈿子, 또는 暖額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어 화관이 중국계 관모임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권의 분위기로 보아서 그 시행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花冠의 시행을 거절하나, 이후 英祖代에 와서는 상황이 바뀌고 있어, 英祖 23년 英祖가 “판중추부사 俞拓基가 婦人の 髻를 없애려고 하였었는데, 髻는 金鎖商의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고, 봉조하 閔鎭遠의 집안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의정의 집안에서도 가지고 있는가?”하자 閔應洙가 말하기를 “신의 從祖父 고 상신 閔鼎重이

중국에서 花冠을 얻어 왔으며, 先 正臣 宋時烈의 집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하였다. 尹汲이 말하기를, “髻 한 건은 신이 금번 使行에서도 얻어 왔습니다만, 제도가 花冠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하고 ... 임금이 말하기를 “판중추부사가 대궐 안의 제도를 따르려고 했었지만, 내부의 모양이 다른 사람과 구별이 없었으니, 文章과 제도를 이와같이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 듯하다.”²¹⁾하고 있어 조선후기에는 이미 중국계 화관이 각 사대부 가문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宮樣과 별다른 바 없이 유사한 형태와 제도임을 말하고 있다.

또 영조 25년에 장령 具允明이 상서하기를, “...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상하의 구별이 없다고 기록했다 합니다. ... 皇朝大典의 법을 따라서 당하관은 靑綠袍를 입게 하고 婦人の 머리 쪽 또한 명나라의 예를 따라 冠飾으로 대신토록 하며 ...”하고 ... 임금이 하교하기를, “... 華冠은 비록 머리 쪽을 대신할 만하나 만약 盛飾을 한다면 그 사치스러움이 머리 쪽과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니,²²⁾ 이 기록을 통해서도 花冠이 중국의 明代의 婦女冠飾에서 비롯된 양식임을 밝히고 있다.

영조 33년에 다시 하교하기를, “오늘날 금해야 할 것은 부녀들의 다리이다.”하니, 知經筵 洪鳳漢이 말하기를, “백성들의 집에서 婚禮때 다리를 사기 위하여 심지어는 가산을 탕진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禁습이 한번 내리면 온 도성이 반드시 鼓舞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제로 정한 뒤라야 비로소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하고, 特進官 鄭亨復이 아뢰기를, “물건의 실정은 반드시 편리함에 알맞아야 합니다.”하

21) 英祖實錄, 권65, 英祖23년 7월29일 丁巳.

判府事俞拓基 欲去婦人髻髮 而髻則金鎖商家用之 奉朝賀閔鎭遠家 亦然云 右相之家所有之乎 閔應洙曰 臣從祖故相臣閔鼎重 得花冠於中國而來矣 先正臣宋時烈家 亦用之 尹汲曰 髻一件 臣於使行 亦得來 而制度無異花冠矣 ... 上曰 判府事欲從關中之制 異內樣 與外人無別 文章制度 恐不當如此矣

22) 朝鮮王朝實錄, 英祖實錄, 권70, 英祖25년 10월5일 庚辰.

掌令具允明上書曰 ... 皇朝大典之法 堂下官用靑綠袍 婦人首髻 亦從明禮 代以冠飾 ... 上 教曰 ... 花冠雖可代髻 若盛飾之 則其侈與髻何殊 ...

19) 周汎·高春明, 앞의 책, p. 402.

20) 宣祖修正實錄, 권8, 宣祖7년 11월 辛未.

女人既嫁者 束髮于頂 而加以髻髻 其制北人 結以鐵絲 南人 用竹爲之 俱裹以絹 又捲絹爲首帕 名曰鈿子 冬月 則或以毛皮爲之 名曰暖額 自額繞髻 結于頂後 而上橫 以笄 婦人因事出外 則飾鈿子以文絹 或加金皮 新婦親 迎之際 亦止戴此 而或施七寶粧嚴俗所謂花冠也

니. 임금의 말하기를, “무엇으로 대응하면 좋겠는가?”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젊은이들은 簇頭 띠를 쓰고 늙은이가 되어야 비로소 다리를 엮었다고 하는데, 儒臣들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議定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고, 교리 尹得養은 말하기를, “혹은 족두리라고도 하고 또는 花冠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만일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을 금하지 않고 머리의 장식을 호화스럽게 하게 되면, 그 폐단은 다리보다 더 클 것입니다.” 하여²³⁾ 족두리와 화관을 같은 양식으로 보며 거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조 3년에는 송덕상이 아뢰기를, “玉堂과 禮官으로 하여금 널리 古制를 상고하여 閭閻의 髮하는 습관을 엄금하고 中朝의 花冠을 쓰는 제도를 모방하여 씌으로써 사치스러움을 제거하는 방도로 삼으소서.”²⁴⁾ 하니 가차 대응으로 거론하는 화관이 중국의 것임을 다시 밝히고 있다.

또 같은 해에 영의정 金尙喆이 아뢰기를, “儒賢宋德相이 지난번 髮을 금하게 하라는 뜻으로 仰請하였기 때문에 널리 고증하여 헤아려보라고 한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생각하여 보아도 실로 체발을 대체시킬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감히 지적하여 覆啓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현이 진달한 것은 진실로 사치를 제거하고 검소를 숭상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영구히 행할 수 있는 禮制를 얻은 연후에야 체발을 금지할 수 있다. 비록 花冠으로 말하더라도 또 珠玉과 金貝로써 꾸민다면 그 비용이 도리어 체발하는 것보다 더 들게 된다. 대저 末世에서 풍속을 변화시키는 것은 모두 위에 있는 사람의 책임인 것이다. ... 내가 등극한 뒤 먼저 宮中에서부터 통렬한 禁斷을 가하여

옛날에 체발로 하던 것을 布木으로 대신하게 하였는데 이는 假髻하는 법제인 것으로 宮樣이기 때문에 外間에서는 쓸 수가 없다. 花冠도 또한 品階이므로 또한 下賤들에게까지 사용할 수 없으니, 이는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²⁵⁾ 하며, 화관이 宮樣이며 品階服인 예복에 속함을 나타내 주고 있음으로 보아, 朝鮮王朝 實錄에 나타난 화관은 明代의 관모를 그대로 들여다 사용하였던 것으로 宮中 또는 士大夫 가문에서 사용되었던 禮冠임을 알 수 있다.

나. 中國 文獻에 나타난 花冠

花冠이 宮樣이라면, 중국의 宮樣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花釵冠에서 화관의 원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 花釵冠은 ‘花釵鳳冠’이라 부르며, 后妃命婦가 쓰는 禮冠으로 수책, 양잠, 조희 때 사용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일반 부녀자들은 비록 품급은 없지만 成婚, 입관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尊卑等級에 따라 花株數量이 달라졌다. 花釵首飾의 풍조는 일찍이 漢代에 이미 출현하였고, 四川重慶龍橋漢墓 출토의 陶俑 및 山東金鄉漢墓出土의 石刻像에 나타나 있다.

<唐六典>卷四의 기록에 “대체로 外命婦의 服은 花釵翟衣로, 외명부의 수책, 양잠, 조희, 婚嫁때의 服이다.” 李林甫注에는 “第一品은 花釵九樹, 翟九等, 二品은 花釵八樹, 翟八等이었다.” 또 “모든 婚嫁시에 花釵禮衣가 六品이하의 妻 및 女嫁의 服이다.” <宋史·輿服志三>에는 “中興은 여전히 舊制를 따른다. 龍鳳花釵冠은 大小花 24株, 博鬢, 冠飾은 皇太后와 같으며, 皇后服은 紹興九年에 정해졌다. 花釵冠은 小大花 18株로서 皇太子冠의 梁

23) 朝鮮王朝實錄, 英祖實錄, 권90, 英祖33년 11월1일 己丑.

仍教曰 今之可禁者 婦女髻髻也 知經筵洪鳳漢曰 人家婚禮 買髻者多至財產 禁令一下 滿城必鼓舞矣 然一定邦制 然後始可禁也 特進官鄭亨復曰 物情必稱便矣 上曰 當代用 何物耶 鳳漢曰 古則少者戴簇頭 老者始戴髻 而使儒臣 博考而議定宜矣 校理尹得養曰 或言簇頭 或言花冠 而若不禁奢 盛其首飾 則其弊反過於髻髻矣

24) 正祖實錄, 권7, 正祖3년 2월14일 己巳.

德相啓言 令玉堂禮官 博考古制 嚴禁閭閻髻髮之習 做用中朝花冠之制 以爲祛奢之道

25) 正祖實錄, 권7, 正祖3년 2월25일 庚辰.

領議政金尙喆啓言 儒賢宋德相 頃以禁髻髮之意仰請 而有商量博考之命矣 百爾思之 實無可以代髻者 故不敢指的覆啓 上曰 儒賢所達 寔出祛奢崇儉之意 然必得其永久可行之制 然後髻髮可禁 雖以花冠爲言 而如又以珠玉金貝加飾 則其費反過於髻髮 大抵末世移風 莫非在上者之責 ... 子於登極後 先從宮中 痛加禁斷 昔之以髮者 代之以木 此假髻之制 而宮樣不可用於外間 花冠亦品服也 亦不可并用於下賤 此固難便矣

의 數를 따랐고, 兩博鬢을 하였고, 龍鳳은 없었다. 皇太子妃의 服은 乾道七年에 정해졌다.” <明史·輿服志二>에는 “洪武三年규정에 后妃가 수책, 제사를 지낼 때, 조희시의 예복이다. 冠飾은 九翟, 四鳳花釵九樹, 小花의 數와 같다. 兩博鬢九鈿을 하였다.” 또 洪武元년에 一品命婦의 관은 花釵九樹, 二品の冠은 花釵八樹, 三品은 花釵七樹, 四品은 花釵六樹, 七品은 花釵三樹로 정했다.

徐珂 <清稗類鈔·服飾>에는 “鳳冠은 옛날에 尊貴한 婦人의 머리장식으로, 漢代에 오직 皇太后가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의 首服으로 鳳凰으로 장식했다. 그후에는 九龍四鳳 혹은 九翟四鳳, 모두 后妃의 복식으로 변하였고, 明代에는 皇妃의 常服에 花釵鳳冠을 썼으며 평민이 시집갈 때 鳳冠을 사용하였고, 淸이 망하기 전까지 漢族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렇게 品官上庶의 子弟 결혼 때 新婦가 반드시 鳳冠霞帔를 사용한 것은 妾이 아니라 妻임을 표시한다.”²⁶⁾ 이처럼 花釵冠이 조선시대의 화관과 유사한 형태로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珠冠을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부녀자의 禮冠이며, 竹絲로 테두리를 두르고, 겉은 絹羅로 하여 珠翟翠花로 장식했고, 元·明·淸 三代에 유행하였는데, 일반적으로 命婦가 쓰며, 翟花 裝飾의 규정이 있어, 身分을 구별할 수 있고, 后妃가 쓰는 鳳冠과 유사하며, 이전에는 鳳冠이라고도 불렀다. 일반 부녀자는 품계는 없지만 成婚때와 入殮때에는 쓸 수 있었으며, 평상시에는 쓸 수 없었다.²⁷⁾ 이 珠冠이라 부르는 禮冠 역시 화관과 마찬가지로 竹絲로 뼈대를 만들고 겉은 絹羅로 싸고 그 위에 수식을 하였으니, 비록 사용된 수식의 모양이나 형태에 있어서 차이는 나지만 거의 화관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禮冠으로서 일반 부녀자들에게 결혼 때만은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이와같이 중국의 唐代부터 사용된 화관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6) 周迅, 高春明, 앞의 책, pp. 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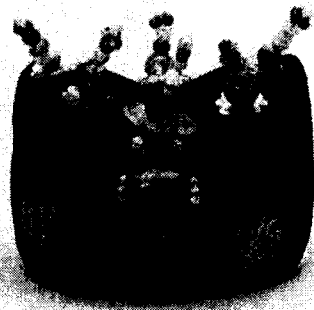
27) 周迅, 高春明, 앞의 책, pp. 55-56.

IV. 禮裝用 쓰개류의 樣式的 特徵

1. 簇頭里的 樣式的 特徵

현존하는 유물 중에서 18~19세기 유물로 알려진 예장용 꾸민족두리 5점(張淑煥 소장 2점, 濫陽民俗博物館 소장 1점,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1점, 李得善 소장 1점)을 분석하여 그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張淑煥 소장 족두리(1)<圖7>은 지름9.5cm 높이9.8cm이며, 검은 비단으로 겉을 싸 좁족두리로, 몸체 정면에는 박쥐 조각, 양옆에는 福字, 맨 위는 석유향으로 장식하고, 뒷면에 나비장식, 몸체 上部 중앙에는 花紋의 玉板 위에 구슬을 꿰어 장식하고, 주변에도 작은 花板 위에 산호, 밀화, 비취 등 각색 구슬을 꿰어 봉처럼 만들어 세운 꾸민 족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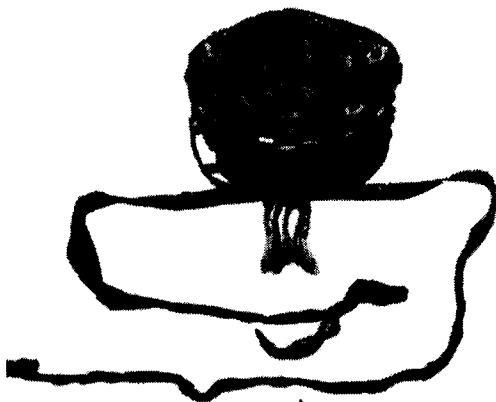
<圖7>
 蝙蝠紋樣족두리 (張淑煥소장)
 출처: 조선시대의 관모

張淑煥 소장 족두리(2)<圖8>는 지름이 10.1cm, 높이가 6.5cm의 크기이며, 종이로 뼈대를 만들고 배집한 후 紫色의 비단으로 겉을 싸주었고 안에는 솜을 넣지 않고 비계 하여 만든 홀족두리로, 상부에는 석유향을 앞측에 장식하고, 중앙에는 분홍색 玉板 위에 크고 작은 구슬을 꿰어 七寶의 띠 장식과 함께 세웠으며 다른 부위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슬을 장식하고, 앞 정면에 이마를 가리우는 부분에는 작은 구슬을 7줄을 늘어뜨려 술을 달아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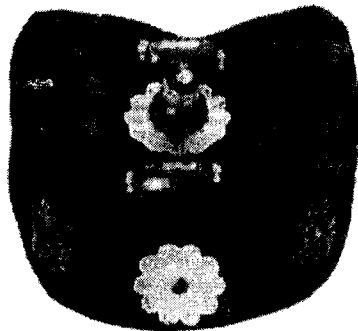
〈圖8〉
홍색홀족두리(張淑煥 소장)
출처 : 조선시대의 관모

溫陽民俗博物館 소장 족두리〈圖9〉는 지름이 10cm, 높이가 6.3cm인 호화로운 장식을 부착한 칠보족두리의 형태인데, 겉면은 검은 비단으로 짠으며, 솜을 넣지 않고 만든 홀족두리로 몸체 옆면, 상부 가장자리 등에 구슬로 장식하고, 상부중앙과 가장자리 사이사이에는 화판 위에 구슬을 꿰어 장식하고 있다.



〈圖9〉
꾸민족두리(溫陽民俗博物館 소장)
출처 : 조선시대의 관모

李得善 소장 족두리〈圖10〉는 지름 10cm, 높이 7.9cm인 이 족두리는 高宗 때 吏曹參判을 역임한 退湖 李貞烈(1865~1948)의 宗宅에 보존되어 오는 족두리로, 검은 비단으로 겉을 싸고 안에는 솜을 도톰하게 넣어 만든 솜족두리이며, 몸체 정면에 옥화판을 장식하고, 양옆에는 壽福康寧의 文字紋樣을 넣어 장식하였으며, 상부 중앙에는 玉板 위에 구슬을 꿰어 봉을 세워 장식하고 앞, 뒷측에는 석유향을 타원형 형태로 장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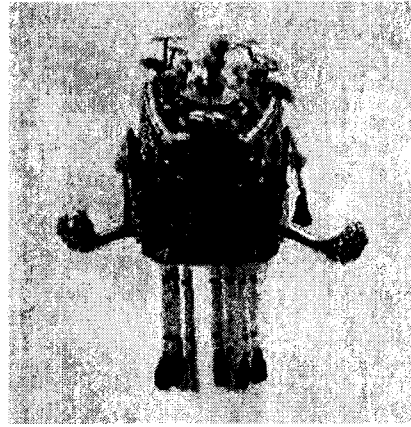
〈圖10〉 文字紋樣 족두리
(李得善 소장)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족두리〈圖11〉는 조선시대 후기의 족두리로서 넓이 12.4cm, 높이 12.8cm인 이 족두리는 다른 족두리에 비하여 그 넓이와 높이가 월등히 큰 족두리로, 겉은 검은 비단으로 싸주고 솜을 두어 만든 솜족두리로, 몸체 측면에는 鳳凰, 쌍봉어, 석류, 仙鶴紋을 도금 조각한 것으로 장식하였고, 상부에는 五花形 玉板에 밀화, 공작석, 진주 순으로 봉처럼 꿰어 다섯군데로 배열하였고, 사이사이에 봉황문 뿔 장식을 하였고, 이마에는 두 가닥의 적색 술을 늘어뜨리도록 되어 있다.

이 족두리는 매우 드물게 보는 화려한 의장으로 크기와 규모가 타 족두리에 비해 상당히 크고, 수식재료 역시 타 족두리에 비해 크고 화려하고, 사용 문양도 타 족두리에서 볼 수 없는 석류문, 쌍어문 등 귀한 문양들이 표현되어 있어 왕가 및 상류층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박물관측은 설명을 붙이고 있다.



〈圖11〉 꾸민죽두리
 출처 : 조선시대의 관모



〈圖12〉 화관(張淑煥 소장)

2. 花冠의 樣式的 特徵

화관은 유물 4점(장숙환 소장 1점,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1점,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1점,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소장 1점)을 통해서 그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張淑煥 소장 화관〈圖12〉은 가로 6.6cm, 세로 9.5cm, 높이 11.6cm의 크기로 몸판은 두터운 종이에 무늬를 새기고 검정 칠을 한 후 가장자리를 색종이로 장식하였으며, 화관정면의 중앙은 여의문 형태이고, 상판 중앙에는 각색재료를 구슬을 꿰어 봉을 만들어 장식하고, 사이사이 같은 형식의 봉 장식과 칠보로 된 떨나비 장식을 해 주고, 정면 위에서 진분홍색 술을 늘어뜨리고 있고, 이마로 내려오는 부분은 작은 구슬로 술을 달아주었으며, 양 측면에 비녀를 꼽게 되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화관〈圖13〉은 넓이 9.4cm, 높이 12cm인 이 화관은 겉은 검은색, 안은 홍색 종이를 발랐으며, 머리에 쓰는 몸체와 앞면과 좌우면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상부에는 석옹황, 밀화, 각색 구슬로 여러 개의 봉을 만들어 장식하였고, 사이 사이에 七寶 鳳凰과 나비문양의 떨 장식을, 앞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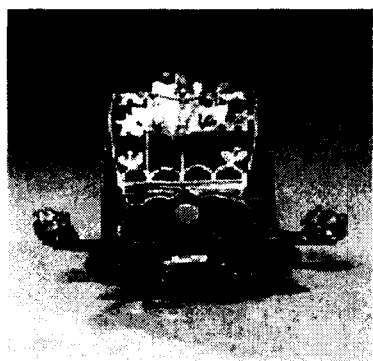
〈圖13〉 화관(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은 여의문 형태인데 가장자리에는 진주 구슬을 돌려 장식하였고, 중앙에는 금색 종이에 壽福字紋을 장식하였으며 이마로 내려오는 부분에는 작은 구슬을 술로 만들어 늘어뜨리고 있다.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화관〈圖14〉은 겉이 검은색, 앞면 중앙은 여의문 형태로 玉으로 만든 '囍'字를, 상판 중앙에는 玉으로 만든 鳳凰을 장식하였으며, 상판 좌우에도 金版으로 만든 鳳凰을 오려 붙이고 진주를 장식하였고, 화관 측면에는 구멍이 있어 비녀를 꽂아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다.

光州市立民俗博物館 소장 화관〈圖15〉은 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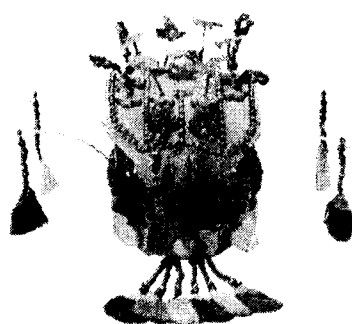
8cm, 높이 12cm의 크기로, 겉은 연두색의 緞을 바르고, 앞면의 형태가 앞의 유물이 여의문을 하고 있음에 비해 다르게 되어 있고, 상부에는 각색 재료로 봉을 만들어 화관 위에 장식하고 사이사이에 나비, 꽃 모양의 띠 장식을 하고 있으며, 관의 측면에는 각색 구슬 장식과 함께 관 밖으로 늘어지도록 탄력있게 휘어진 가는 철관을 꿸고 그 끝에 작은 구슬과 술을 달아 길게 늘어뜨렸다.



〈圖14〉 화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⁹⁾

먼저 흑색에 대하여 보면 孔子는 ‘羔裘玄冠 不以弔’라 하여 검은 옷과 검은 冠으로는 조문가지 않았다고 하니, 喪事에는 흰색을 위주로 하고 吉事에는 黑色을 위주로 한다.³⁰⁾ 즉 동양의 색채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검은색은 吉色, 흰색은 喪色으로 여기니, 신부의 玄色 꾸민족두리가 吉禮인 婚禮 때 사용되었고 喪禮 때에는 흰족두리를 사용하였던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圖15〉 화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소장)

3. 簇頭里와 花冠의 修飾의 特徵

앞서 유물을 분석해 본 결과, 족두리와 화관의 수식을 살펴보면 색채, 장식의 형태와 문양, 보석의 종류 등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소재의 다양함 속에는 奢侈 의도 외에 수식의 특징 속에 나타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족두리·화관의 색채를 보면, 조선시대 정조 12년(1788)에 假髻新禁節目 중의 하나로 “족두리를 사용하되 綿으로 만든 것이나 竹으로 만든 것을 따질 것 없이 다 흑색으로 겉을 싸게 하소서”²⁸⁾라 하였고, “조극선이 말하기를 簇頭里는 光海君 중기부터 모두 玄錦으로 거죽을 하고 紫로 안을 하였으며 그 속은 티었으며 머리 위에 올려 썼는데 이를 족두리라 하였고 한때 좋아하여 國俗으로 변했다 하였으니”라 하니, 족두리의 색상으로 겉은 검은색, 안은 자색을 사

그러나 족두리의 걸감 색상으로 반드시 검은 색만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보니 <珮物衣次發記>에 ‘모란색 공단 족두리, 진주 산호 옥판 구’로 족두리의 색과 꾸밈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홍색 족두리가 궁중에서 쓰여졌음을 알 수 있고, 英祖貞順后 嘉禮都監 儀軌班次圖<圖15>에서 녹색저고리와 남치마를 입고 있는 步行內人의 모습에서도 홍색족두리를 착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³¹⁾ 淡窩 洪啓禧의 平生圖 중 回婚禮<圖16>를 올리는 장면에서도 부녀자들의 족두리를 홍색으로 묘사해 놓고,³²⁾ 장숙환의 소장 유물에도 홍색 족두리<圖14>가 있어 홍색 족두리

28) 正祖實錄 권26, 正祖12년 10월3일 辛卯.
用簇頭里 毋論綿絮涼竹 皆以黑色外裹

29)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p. 426.

30) 임영자, 공자의 의식주에 대한 고찰 -논어향당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논문집, 1982 pp. 284-287.

31)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1759.

32) 국립중앙박물관 편저, 朝鮮時代風俗畫, 한국박물관회, 2002 p. 97.

의 존재여부를 확실히 해주고 있으니, 홍색 역시 검은 색과 마찬가지로 吉色으로 선호하며, 주술적으로 자주 사용되던 색으로 민간에서는 악귀를 쫓거나 예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채로, 혼례, 의식 등 吉事에 사용하는 족두리를 검은색 또는 홍색으로 만들어 사용함에는 착용자들의 儀式을 통하여 바라는 구복신앙이 담겨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修飾의 재료는 英·正祖時代에 부착 장식물 또한 사치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앞의 유물에 수식된 재료를 보면 玉, 眞主, 珊瑚, 琥珀, 石雄黃 등이 대체적으로 쓰이고 있다. 족두리, 화관 모두 玉조각이 많은데, 玉은 동양인이 가장 선호하는 재료로서 옥의 어원을 단어에서 찾아 볼 수 있으니 “왕은 반드시 옥을 지녀야 한다고 하여 ‘王’字와 가공을 의미하는 일획 ‘·’을 찍어 玉이라 쓰이게 되었다.”³³⁾고 하여 매우 귀하게 취급하는 장식 재료였다.

漢代에는 황제와 귀족의 屍身을 殮할 때 玉衣를 만들어 殮服으로 사용하였는데, 옥의가 생겨나게 된 동기는 한나라의 통치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자 귀하고 값비싼 옥을 厚葬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玉衣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한다.³⁴⁾ 이러한 옥을 재료로 만든 장신구는 사대부인 남성들에게만 애용된 것이 아니고 여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장식물로 애용되어왔으니, 이 옥을 재료로 하여 족두리·화관의 장식에 많이 이용됨은 당연하다고 본다. 유물에는 목단, 국화, 도라지꽃, 나비, 매미, 쌍학, 편복 등의 형태로 조각되거나 구슬로 만들어져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眞珠는 족두리의 위판 또는 화관의 상부의 측면, 이마를 드리우는 술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珊瑚는 주로 구슬의 형태로 연마되어 기둥(봉)에 올려지며, 琥珀은 봉을 올릴 때 쓰여지며, 간혹 족두리의 앞면과 옆면을 꾸밀 때도 사용된다.

石雄黃은 천연석으로 광택이 나는 돌로 染料나 彩料 등으로도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석용황을 몸에

지니면 뱀에 물리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의 辟邪의 의미를 지니고 비상약으로도 쓰여졌는데,³⁵⁾ 유물을 보면 길죽한 半圓形의 형태로 만들어 정수리 전후에 진주 구슬 등과 함께 장식하기도 하고 몸체기둥에 구슬 형태로 만들어 올리기도 하였다.

한편 보석의 연마 형태나 상부 또는 측면에 장식된 문양을 보면 動物紋, 식물문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는데, 동물문을 먼저 보자면 봉황, 학, 나비, 편복, 물고기문양 등이 있다.

鳳凰紋은 고대 중국에서 쓰여지기 시작한 문양으로, 鳳凰은 鳥類 중 가장 아름다운 새로 모든 새들의 황제이며, 오동나무에만 내려앉으며,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때에 나타나는 새로서, 鳳과 凰은 은밀한 성적 결합을 암시하고 있는데,³⁶⁾ 우리나라에는 唐代 이후에 鳳凰紋이 전래되어 각종 意匠으로 애용되었고, 왕비의 표식으로 삼아왔던 문양으로 婚禮服과 婚禮帽에 사용되어 性的 結合이라는 암시와 함께 번영을 기원한 문양으로 婦德과 人格을 통해 榮華를 추구하고자 했던 염원으로 여겨진다.

鶴은 우리민족이 귀하게 여기는 동물로 十長生 중의 하나인데, 千壽와 신분의 고귀를 상징하는 瑞鳥로 믿어져 왔으며, 세속에 물들지 않은 仙의 분위기를 나타내어 仙鶴이라 일컫기도 하니 장수를 염원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비는 牧丹과 함께 주로 쓰이는데 꽃에는 나비가 따른다는 자연의 이치로 夫婦愛 즉 금슬이 좋음을 상징, 혼례의 상징인 족두리에 나비가 장식문양으로 쓰인 것은 자극히 자연스러운 발상으로 볼 수 있다.

蝙蝠은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仙鼠라 일컬으며 2천년을 산다고 믿어왔으니 長生의 의미를 지니며, 蝠은 福과 同音同聲인 까닭에 박쥐는 福을 상징하여, 흔히 옷감이나 공예, 민화에 福을 기원하는데 문자 대신에 박쥐무늬를 施文하기도 하였으니 長生과 福의 기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쌍어문은 인도, 중국, 중동지방에서 선호하고 있는 문양으로 안녕을 비는 부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몽고의 전통 종교인 라마교에서는 八寶중의 하나이며 수호신으

33) 이윤희, 현대 혼례모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 42.

34) 왕웨이 외, 손에 잡히는 중국역사의 수수께끼, 대산출판사, 2001 pp. 230-234.

35) 이연화, 앞의 논문, p. 36.

36) C.A.S. 윌리엄스 저, 이용찬의 역, 환상적인 중국문화, 평단문화사, 1985 pp. 200-203.

로 여겨 라마교 사원, 징기스칸 당시 사용하던 취사용 솥, 현대 인민공화국의 결혼식장의 장식벽화로도 널리 쓰이고 있는 문양이다.³⁷⁾ 이는 또한 금슬 좋은 부부, 다산, 혹은 성적 조화의 상징으로 중동지방에서부터 중국에까지 널리 퍼진 문양으로,³⁸⁾ 복은공주의 활옷에도 이 문양이 수놓아져 있음을 볼 수 있으니, 혼례용으로 사용되어 온 족두리에 이러한 의미를 지닌 쌍어문의 사용은 활옷의 문양처럼 자연스러운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³⁹⁾

植物紋은 국화, 목단, 천도, 석류 등이 있는데, 菊花는 늦가을에 서리를 맞으며 피어나는 꽃으로 절개, 청초, 고결함을 뜻하고, 지조가 높고 깨끗한 선비 또는 군자의 기상을 상징하기도 하며, 長壽花라 하여⁴⁰⁾ 잔치상이나 환갑, 진갑 등에 현화로 많이 사용하였으니 不老長生の 도교적 신앙관과 관련있는 문양이다.⁴¹⁾ 牡丹紋은 모란은 중국에서는 花王, 富貴花이라고 일컬어졌으며,⁴²⁾ 옛사람들은 모란의 생장 상태를 보고 吉凶을 점치기도 했다 하니,⁴³⁾ 혼례 때 사용되는 족두리·화관뿐 아니라 활옷의 문양, 혼례 병풍으로도 많이 이용되었음은 富貴榮華를 바라는 마음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天桃는 神仙들이 먹는 열매인 長壽의 대표적 과실로, 민간에서는 장수의 신이 복숭아에서 나오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자물쇠 모양으로 깎아 만든 복숭아 들은 어린아이를 죽음에서 보호하는 부적으로 통하기도 하였고, 대추와 함께 자손 번창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봄과 장수를 뜻하기도 하므로 婚需와 혼례복 등 자수품에서 상징적 도상으로 쓰여 왔는데,⁴⁴⁾ 족두리·화관의 도안으로 쓰고 있음은 이들 관

모의 사용 용도로 볼 때 다른 도안들이 추구하는 기복의식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발상이라 볼 수 있다.

석류는 일명 砂金袋라고도 하는데 씨를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이 문양 역시 자손번창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며, 석류의 알이 터져 나오는 모양을 榴開百子라 하여 다산 다남의 상징으로 쓰여지니⁴⁵⁾ 혼례용 족두리에 석류문의 도안은 그리 생소한 문양이라 볼 수 없고, 혼례를 통해 염원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해 준 도안이라 볼 수 있고, 그밖에 吉祥文字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각종 보석을 문자로 연마하거나, 혹은 금박종이를 오려 장식하되 壽·福·康·寧·龔·富 등의 글자를 직접사용하여 長壽, 救福, 健康을 기원하는 現世求福의 文字紋을 장식하고 있다.

이같이 족두리·화관에 장식된 문양들을 보면 동물문, 식물문 모두 혼례 또는 각종 의식의 성격에 맞게 성적 화합이나 부귀, 영화, 번영, 건강, 구복, 다산, 다남, 장수 등을 바라는 현세구복적 염원을 표출한 문양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신앙관 및 종교심을 표출해 준 문양으로, 의복은 물론 머리에 쓰는 관모류까지도 아름다움 그 자체만을 표현하려고 애쓰보다는 착용자의 염원이 반영된 현세구복적 신앙관이 담겨진 부적과 같은 존재로 쓰여졌음을 볼 수 있다.

V. 禮裝用 쓰개류에 反影된 意味

조선조 후반에 와서 일반화된 예장용 관모류 중에서도 족두리와 화관은 그 양식이 원래는 宮樣이었고, 앞의 문헌에서 살펴본 바처럼 당시 성리학의 大家였던 예학에 밝은 특수계층의 사대부가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들 관모가 모두 중국식 관모에서 비롯된 것임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17세기 조선후기는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제정세상황을 극복하고 명나라가 망해 사라진 현실에서 문화적으로 조선이 선진문화의 중심국가라는 조선중화사상을 형성하여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기제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하며 유교

37) 김병모, 김수로왕비의 혼인길, 푸른숲, 1999 pp. 165-170.
 38) 허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1 p. 87.
 39) 金淑敬, 朝鮮後期 女子 婚禮服에 관한 研究 -意味分析을 重點으로-, 東亞大學敎 大學院, 2000 p. 21.
 40) 吳勤在, 韓國文樣의 展開-菱花篇, 미진사, 1987 p. 182.
 41) 韓國文化象徵辭典 編輯委員會, 韓國文化象徵辭典1, 東亞出版社, 1996 pp. 77-79.
 42) C.A.S. 윌리엄스 저, 이용찬의 역, 앞의 책, p. 131.
 43) 허균, 앞의 책, p. 87.
 44) 韓國文化象徵辭典 編輯委員會, 앞의 책, pp. 348-350.

45) 吳勤在, 앞의 책, p. 148.

문화를 모델로 삼고, 강화하고 문물의 제도적 재정비를 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禮制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관모류에도 다양한 형식을 가져오게 되어 유교적 예가 모델이 된 자연스레 중국의 모든 문물제도를 모델로 삼았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체에 대한 폐단이 매우 심각해지자 사치풍조를 철폐시키고자 내어놓은 대안책 역시 중국의 관모를 모델로 삼고자 하였던 분위기는 당연한 것이라 본다.

관모의 착용이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나 새삼스레 위와 같은 사회 분위기, 즉 조선중화주의 의식이 팽배해 있는 당시, 부녀자들의 머리장식에 대한 대체제로 중국 양식인 족두리·화관의 착용을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순한 사치폐단의 대용품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 복식의 성격을 규명해 볼 때 선행연구⁴⁶⁾들이 밝힌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明代의 유교적 문화권의 服飾을 지속 繼承, 또는 일부 사라진 옛 복식제도를 復活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교적 문화의식의 고취사상인 中華思想이 복식문화 전반에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이는 중국이 청에 점령당한 후, 중국문화의 본질인 儒學, 즉 禮制를 통해서 중국문화를 조선만이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인 朝鮮中華主義 의식이 족두리·화관의 착용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 배경에도 크게 반영되어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의 고취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흐름이 사회의 전반적 재편성을 요구하는 시기로, 18세기 말 正祖代는 조선 성리학이 퇴조하고 북학사상이 형성되어 북학 운동이 추진되고 있었던 분위기에서, 기존의 文化自尊意識과 北伐大義論을 반성, 이에 보다 앞선 淸의 문물과 제도적 실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많은 부분에서 대내외적 정책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치풍토의 시정정책의 일환으로 족두리와 화관이 거론되고 있음은 많은 부분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본다.

46) 金淑敬, 앞의 논문.

鄭熙靜, 朝鮮後期 便服袍에 관한 研究-形態, 種類의 多樣性이 주는 意味-,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0.

영조대는 절대왕권의 후반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입장이었고, 정조대는 문화적으로 爛熟期였지만 문화성숙 후반부 단계에서 나타나는 퇴폐적 분위기, 사치현상 등이 만연한 시대에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족두리·화관의 거론은 영·정조대가 수정주의로 넘어가는 한 과정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치풍조의 상징인 가체를 없애고 宮樣인 족두리와 화관을 부활시킨 점에서 당시 위정자들의 통치적 의지를 엿볼 수 있어, 족두리·화관이 궁양인 것에 먼저 주목해 보고자 한다.

궁양을 일반에게도 허용한다는 것은 당시 정치권의 유교적 사회질서에 따른 신분계층의 억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한계점에 달해 위선적인 문화자존 의식만 가지고는 사회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체방안을 강구하는 의식의 전환이라 보며, 사치욕구의 억제보다는 족두리·화관이라는 현실적 대체제를 통해 절충안을 찾는 정치권의 배려로 볼 수 있어, 당시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의식의 물꼬를 터놓은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가체는 늘 착용하나, 족두리·화관은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실용적 추구하고 근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음으로, 기존 사회의 계층의식 및 허례허식을 버리고 실리성을 추구하고, 현실성을 인정하는 利用厚生의 實學思想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족두리·화관의 걸감 색은 주로 검은 색이 많은데, 이는 동양의 색채에 대한 관점에서 검은색은 吉色으로서, 신부의 玄色 꾸민족두리가 吉禮인 婚禮 때 사용되었음은 길색을 경사에 채택, 구복이 담겨져 있다고 보며, 홍색 역시 吉色으로서, 주술적으로도 자주 사용되던 색으로 착용자들의 구복신앙을 볼 수 있다.

또한 족두리·화관에 수식되는 紋樣에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바램이 내포되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문 중 鳳凰紋은 鳳과 凰은 은밀한 성적 결합과 榮華를 추구하는 염원으로, 鶴은 千壽와 신분의 고귀함을 상징하고, 나비는 夫婦愛 즉 금슬이 좋음을 상징하며, 蝙蝠은 仙鼠로 長生の 의미, 蝠은 福과 同音同聲인 까닭에 福의 기원으로, 그리고 족두리에는 드물게 보이는 쌍어문은 八寶

중의 하나로 금슬 좋은 부부, 다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식물문 중 菊花는 절개, 청초, 고결, 선비, 군자의 기상을 상징하고, 長壽花라 하니 不老長生の 신앙관과 관련있고, 牡丹紋은 중국에서는 모란을 일컬어 花王, 富貴花이라 하여 富貴榮華를 바라는 염원을, 天桃 문양은 장수의 과실로, 석류문은 일명 砂金袋라고도 하며 자손번창의 의미로 사용하고 榴開百子라 하여 다산 다남의 상징으로 볼 수 있고, 그밖에도 福·康·寧·禧·富 등 吉祥文字紋을 들 수 있는데 長壽, 救福, 健康을 기원하는 現世求福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다.

이같이 족두리·화관의 양식이 주는 의미는 겉을 싸 주는 색채에서 장식하는 수식재료와 문양에 이르기까지 의식의 성격에 맞게 성적 화합, 부귀, 영화, 번영, 건강, 구복, 다산, 다남, 장수 등을 바라는 현세구복적 염원의 표출이라 할 수 있어, 조선 후기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신앙관 및 종교심을 표출해준 부분으로, 의복은 물론 머리에 쓰는 관모류까지도 아름다운 그 자체만의 표현보다는 착용자의 염원을 비는 현세구복적 신앙관이 담겨진 부적과 같은 존재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VI. 結 論

족두리·화관의 원형이 宮樣 혹은 중국의 관모에서 유래되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이들의 變貌過程을 조선조 문헌과 중국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그 양식적 특징과 예장용 쓰개류의 거론 및 전반적인 확산의 사회적 분위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족두리의 원류는 高麗代에 전해진 몽고의 古冠에서 비롯된 족두리가 朝鮮後期 족두리로 이행되는 과정을 놓고 볼 때, 고고가 북방 민족의 나무 토렘사상과 새 토렘사상이 갖든 종교관 및 信仰觀이 반영된 관모류에서 시작되어, 明代의 관모인 明角冠을 거치면서 그 크기가 축소되고, 본질적인 장식도 점차 변하여 순수한 장신구로서의 장식성만 남은 清代의 鈿子로 이행되어, 조선조에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화관의 원류는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首帕, 鈿子, 暖額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鈿子, 花釵冠, 珠冠, 花冠 등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으나, 오히려 그 형태는 난액과 함께 착용했던 족두리의 원형이 되는 鈿子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셋째, 족두리와 화관의 修飾인 색과 보석 그리고 문양 등을 통해 반영코자 했던 부분은 은밀한 性的結合, 繁榮의 기원, 榮華의 추구, 長生の 念願, 求福, 富貴 등으로 혼례 및 각종 의례에 있어서 현세구복적 신앙을 모두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족두리·화관에 반영된 당시의 가치관을 놓고 볼 때, 조선만이 유교적 예제를 통해 중국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 속에 형성된 조선 후기 사회 조류이자 통치이념이 되었던 朝鮮中華主義에 입각하여 만들어낸 시대의 소산물로서의 의의와, 한편 사치의 상징인 가체를 없애고 宮樣인 족두리와 화관을 일반화한 데서 사회적 혼란함의 인정과 필요시에만 착용하는 실용주의, 보다 현실적인 대체제의 강구책을 통해서 虛禮虛飾을 버리는 실리성 추구,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적 계층의 사치성을 정치적 압박보다는 전 계층이 모두 사용케 하는 포용성의 논리를 정책에 반영한 실리성 추구하고 현실성 인정의 實學思想을 엿볼 수 있고, 색감, 수식재료, 문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혼례 또는 각종 의식의 성격에 맞도록 현세구복적 염원을 표출한 것으로서, 착용자의 염원을 비는 신앙관 및 종교관이 담겨진 부적과 같은 존재로 쓰여졌음을 볼 수 있다.

■ 투고일 : 2002년 10월 31일

參 考 文 獻

- 朝鮮王朝實錄
 靑莊館全書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구미래(1994).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국립중앙박물관 편저(2002). 朝鮮時代風俗畵. 한국 박물관회
 금장태(1999).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지娟(1999). 족두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 金淑敬(2000). 朝鮮後期 女子 婚禮服에 관한 研究. 동아대대학원.
- 孫敬子·金英淑 共編著(1982). 韓國服飾史資料 選集. 敎文社.
- 안희진 편저(2000). 中國皇帝遺物選. 지구문화사.
- 유봉학(2001). 정조대왕의 꿈. 서울. 신구문화사.
- 정옥자(1999).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들베개.
- 정옥자(1998).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 정옥자(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 정혜경(1996). 조선시대 초기 실학파의 복식관. 한국 의류학회지, 20(5).
- 최완수 외(1998). 진경시대1. 들베개.
- 韓國文化象徵辭典 編輯委員會(1996). 韓國文化 象徵辭典1. 東亞出版社.
- 허균(1991).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 周錫保(1984).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 周汎·高春明(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 周汎·高春明(1993). 中國五千年 女性裝飾史. 京都書院.
- 周汎·高春明(1988). 中國歷代婦女服飾. 三聯書店 有限公司 上海學林出版社 聯合出版.
- 朱家潛 外(1992). 清代后妃修飾. 紫禁城出版社 栢高出版社.